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03 [28~30]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깐,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춤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썩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딱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  
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  
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  
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짜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섯\*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디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 권을 붙이었다: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 딜옹배기: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 \* 북덕불: 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 나긋손: '저녁때'의 방언.
- \* 섯: '옆'의 방언.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1.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 ②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① (가)는 '천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썩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 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보 기>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읽기 전 활동

시적 공간에서 '방'이 갖는 의미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보기입니다. (가)에서의 방은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나)에서의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깐,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 권을 붙이었다 :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이별한 채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화자는 이렇게 쓸쓸한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목수네 집에 들어가 세를 얻어 생활하게 됩니다.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아내, 부모, 동생과 같은 가족들과 이별하여 혼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의 이별이 화자가 원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벌어진, 화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축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까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쟁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딜옹배기: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둥글넓적한 질그릇.

\*북덕불:짚이나 풀 따위의 엉클어진 뭉텅이에 피운 불.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세를 얻어 사는 집안에서의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방 안에서 별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떠오르는 감정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해 혼자 지내는 방 안에서 화자는 슬픔과 어리석음을 느끼고 이에 대해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화자를 잠식하고 있어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느끼고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그러나'에서 시작되는 시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화자는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리던 와중 시상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뜻과 힘을 통해 스스로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이며, 무언가 큰 뜻이 자신을 굴린다는 사고를 드러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백석뿐 아니라 자아 성찰적인 시가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시상 전환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체로 앞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그러나], [하지만] 등의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앞의 상황에서 제시된 인식과 정반대되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또한, 백석의 시에서 자주 드러나는 ‘초월적 존재에 의한 운명론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음 또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백석은 시에서 ‘그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라며 자신의 뜻과 의지보다 더 상위의 의지가 존재함을 드러내며 이러한 의지가 자신을 움직인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위 섰\*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나뭇손: '저녁때'의 방언.

\*섰: '옆'의 방언.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느끼던 부정적인 감정은 화자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며 차차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만큼은 화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이러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싸락눈 오는 저녁에는 화로 근처에서 ‘갈매나무’를 상상합니다.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써, 외롭게 혼자 눈을 맞으며 서서 있지만, 굳고 정한 속성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매나무는 <보기>에서 제시했듯 앞으로 화자가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 총평

남신의주 유동 지역에 사는 박시봉의 방에서 셋방살이 하는 화자가 쓴 편지의 형식으로 백석 특유의 운명론적 인간관과 함께 당대 지식인의 방향을 매우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그러나’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된다는 점에 유의해서 읽는다면 좋겠습니다.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혁명이 실패하고 화자는 방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방은 <보기>에서 언급되었듯 화자의 내면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혁명이 실패한 후에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꾸기 전의 방에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라는 투쟁의 구호가 적혀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헛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혁명이 실패한 후 혁명에 회의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1연과 마찬가지로 혁명의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를 이전에 놔두고 온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혁명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가슴은 이제 메말라버렸고, 화자는 혁명을 꿈꾸던 화자의 내면이 인생에서 차지했던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화자는 이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헛소리’라 생각하며 공허한 감정을 느낍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혁명이 실패하고 화자는 ‘펜, 뼈, 광기’가 녹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혁명에서 실패한 화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화자는 실망을 가볍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재산으로 삼는다는 역설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실패한 혁명이 가볍다고 생각하며 좌절감을 회피하려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혁명이 실패하고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가 아닌 쓰디쓴 냄새만 되살아납니다. 이는 혁명을 통한 달콤한 의지와, 현실의 암울한 담뱃진 냄새를 대조하는 것으로, 화자가 혁명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현재 현실의 괴리감에 대한 화자의 의지의 좌절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혁명이 실패하고 자신이 혁명을 통해 지향하던 방, 낙서, 기대, 노래를 모두 잃고 이러한 좌절에서 오는 실망감을 회피하기 위해 가졌던 가벼움마저 끝내 잃어버린 화자입니다. 결국 혁명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 이렇게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화자는 이유 없이 기쁘고 가슴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기쁘고 풍성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화자가 자신의 태도에 대해 자조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표현은 반어적 표현으로 <보기>에서 언급된 혁명의 실패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혁명에 실패한 화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지문입니다. 자칫 어려워 보여 쉽게 포기할법한 지문이지만, '낙서', '노래' 등이 혁명을 상징하고 화자는 이를 모두 '그 방'에 버리고 새로운 방으로 바꾼 것이라는 점을 알고, <보기>에서 말한 '방'은 화자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는 점을 알고 읽는다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지문입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의 경우 '~하며', '~적이며'와 같은 문장 형태를 반복하며 화자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고 있고, (나)의 경우 '혁명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라며 혁명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 (가)와 (나) 둘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대상의 양면성 또한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나)에서는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라며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 화자 본인을 자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④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가)에서는 '추위', '싸락눈' 등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⑤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표면에 드러난 '너', '너희'와 같은 청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가)에서 '꽂'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 (가)에서 '꽂'과 화자 모두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꽂 메어 울 적이며'와 '내 눈에 뜨거운 것이'는 모두 눈물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슬픔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가)에서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 '슬픔, 한탄'과 같이 '가라앉을 것'이 가라앉은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침전되어 해소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 심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화자가 머무는 방 창문에 싸락눈이 '쌀랑쌀랑' 오는 사건을 계기 삼아 '쌀랑쌀랑' 눈을 맞을 정한 갈매나무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싸우라', '일하라'는 모두 혁명의 외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단어들을 '헛소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껴 '헛소리'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 '쓰디쓴' 담뱃진 냄새가 되살아 난 것은 화자의 '달콤한' 이상향을 향한 혁명이 실패함으로써 되살아난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자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보 기>

시적 공간의 하나인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가)에서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① (가)는 '권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축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 (가)에서는 화자가 권을 붙인 방의 상황이 습내 냄새가 나는 축고, 누긋한 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은 매우 누추한 방으로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썩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 화자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화자의 방은 화자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공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 '모든 노래'는 화자가 혁명을 꿈꿀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화자는 혁명이 실패한 후 '그 방'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방을 찾습니다. 따라서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볼 수 있습니다.

④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 (나)에서 벽을 가슴, 사지와 동일시하여 자신의 가슴이 이유 없이 메마른 이유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남기고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화자의 내면 의식에 방이 미친 영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선지의 해설은 맞는 선지로 볼 수 있으나, (가)는 화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는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운명론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을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부분은 옳지 않다 보아야 합니다.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가)에서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는 말을 하며 화자가 자신의 인생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 후 눈을 맞으면서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자신 또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소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서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에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는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혁명이 실패한 후 화자가 실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납니다.